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2호 [루게 제24725호] 주제 103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서홍찬동지, 한광상동지, 허환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가신 공장의 자랑찬 행로를 보여주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모형사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1년 2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후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현대적인 제약생산기지로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에까지 병도의 자욱을 찍으신 정성제약종합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건강관리에 요구되는 약품들을 연구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보장할수 있게 약품포장을 손색없이 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도 모랄수 있도록 약품사용설명서도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제약공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력량, 특히 두뇌진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간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음쓰시며 친히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최첨단제약공업의 토대를 그쁘히 갖추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여러가지 약품들을 보신 다음 의약품검정소, 수액공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효능높은 약들과 간편하면서도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가지 휴대용의 약품들을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의약품들의 품질을 담보할수 있게 현대적인 의약품검정소를 잘 꾸려놓았을뿐아니라 최첨단설비들을 가지고 제품검정사업을 책임적으로 엄격히 하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수액공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도달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제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약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며 의약품들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를 비롯한 상비약들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의 모든 대대를 정예화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들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일성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7일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군사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전군의 모든 대대를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장약원 최정예전투대로 강화해나갈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새차게 끓어 치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인민군대의 모든 대대를 정예화된 불패의 전투대로 만들자!》, 《대대를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자!》 등의 구호판들이 광장에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은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그늘로 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북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그 광열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대회에는 황병사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정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악단들의 레시가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온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영성축원의 인사를 드렸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정규적 혁명투쟁전선의 첫시기부터 대대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으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을 파견하시어 대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건군사상 처음으로 대대장, 정치부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의 대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정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악단들의 레시가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온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영성축원의 인사를 드렸다.

영웅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연설에서 인민군대에서는 대대를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집중하여 모든 대대를 그 어떤 강적도 당면해 버려버릴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정신이 깎 들어찬 김정은백옥산대로, 우리당의 제일근위대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높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벌려 전군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고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그 위치가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사람파의 사업을 철저히 마음파의 사업, 감정정서와 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군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으며 싸움준비에서 매일 이란 뜻을 잃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군이 백두산후련열풍으로 융양처럼 솟아오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대대안에 감철같은 군기를 세우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해나가며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려도방어대와 화도방어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대대를 수련화, 원리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모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은 자기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치며 철두철미 중대강화에 기초를 두고 사업하여야 한다. 군정배합과 3위1체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수양되고 순결한 향심과 의리, 고지식한 품성을 지닌 참인간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대대를 중시하고 잘 도와주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강화의 중심인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떠맡아주어야 한다. 오중총7면대정호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체계안에서 선군부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운동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의 모든 부대를 무적필승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연설자는 모두가 《죽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 박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대강화의 자랑한 성과를 안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설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을 대표하여 대대장 김정일은 혁명강군의 위력을 떨치며 대대강화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릴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대는 인민군대의 말단지휘단위이며 주요전투단위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대대의 싸움준비강화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인민군대의 강군화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에서 맡겨준 대대를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위로 원수들을 당면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천하무적의 근위대로 꾸려나갈것이다.

군인대중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불변의 신념을 역적의 기동으로 세워주며 모든 군인들을 당의 두리에 철쭉같이 묶어세워 위기는 정신폭발동의 집화점이 될것이다. 백두산후련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진짜배기싸움꾼, 백두산호랑이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의 존엄을 건드려야 할것이다. 연설자는 모두가 《죽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 박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대대정치지도원 위평명은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위훈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철세위인들의 헌신의 로고가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을 대대강화의 불멸의 대강으로 받아안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모든 대대를 수형결사우위의 최정예전투대로,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 불같은 맹세로 충만되어있다.

당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대대안의 모든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억세게 키워나갈것이다.

우리는 초소마다에서 혁명적이거나 전투적인 백두의 후련열풍이 솟아오르며 하며 대대지휘관으로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마음과 힘을 합쳐 풀어나감으로써 대대를 떠맡는 생기둥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던 전세대 해병들처럼 침략선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한 몸이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어 원수들을 검푸른 바다속에 영영 수장해버릴것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대표하여 대대장 최성학은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을 이어 하늘의 결사대, 불멸의 김정은비행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 비행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불같은 신념이고 맹세이다. 우리들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대강화를 위한 투쟁을 파격적 벌려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부대운동의 불길드요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우위권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경쟁바람을 새차게 일으켜 전투후련과 군인생활개선, 군기확립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겠다.

토론자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전투군을 수행하고 비행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며 결전의 시기가 오면 제국주의위파리테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잡고 침략의 불거지기를 모조리 불마당 질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대대강화의 열풍속에 백백배진진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액센 신념과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원아들의 궁전에 넘치는 어버이의 뜨거운 정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화로 회한하게 일떠선 원아들의 보금자리에 어버이의 따뜻한 정이 깔없이 흘러넘치고있다.

은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꽃수레를 타고 행복의 요람으로 이사한 평양유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종업원들이 7일 은정어린 시로품들을 가슴안가듯 받들어온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세상에 두고 없는 원아들의 궁전을 일떠세워 주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대배같은 은덕이 황홀한 세집에 또다시 감격의 바다를 펼쳐놓았다. 날마다 넘치는 꿈만 같은 경사로 더 밝고 환해진 원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라고 인사를 울리며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룡으로 지니시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잘살고 싶어 바르게 키우시기 위해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며 무럭무럭 자라

나는 원아들이다. 우리 집이 제일이라고 환성을 터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보육원, 교양원들은 시하는 언어도 풀이 없는 어머니당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그들은 첩파라 알알이 잘 익은 과일들과 갖가지 영양식료품들, 의약품들을 보내주고 고은 색돛과 특색있는 유품기재물들이여 최근에만도 희귀한 물고기와 밤, 잣, 꽃감 그리고 동물박제물 등을 거둬 안겨준 한없는 그 은정을 되새기며 따사로운 태양의 빛받아래 더

활짝 피여날 행복동이, 선군동지들의 앞날을 확인하였다. 평양유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교양을 더 잘하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워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어 천만백을 누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이 땅우에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찬가가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깔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 곁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 부르면 부를수록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따듯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정다운 사랑의 목소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이. 나는 문수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마음먹고 건설할 결심입니다. 물놀이장건설에 필요한 건설력량은 내가 편성하겠습니다. 문수지구에 엘도라도식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줄게요. ... 강산에 뜨겁게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정다운 사랑의 목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한껏 넘쳐나는 미림습수리극부며 유류아동병원, 은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이 땅에 무수히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적인 축출물마다에는 건설에서 선린리성, 선 미학성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새겨져있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의 마음을 해쳐준다면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발이

정다운 사랑의 목소리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에서는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민주평화와 기대에서는 강연회가, 캄보디아에서는 영화강상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파키스탄 아미르비평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존엄성은 권위를 위해 대단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수위대 모신 조선로동당은 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으로 이름떨칠것이며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공조국제철학실천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백승의 한결같은 새겨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이런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갈수 있었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주재하시며 주위들의 요구대로 해나 가도록 하시었다.

당의 명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맡기고 그 명도를 일련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캄보자 인민신문사 책임주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승리와 번영으로 향도하는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이다.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도자의 두리에 굳게 묶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각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왕원외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에서는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민주평화와 기대에서는 강연회가, 캄보디아에서는 영화강상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파키스탄 아미르비평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존엄성은 권위를 위해 대단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에서는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민주평화와 기대에서는 강연회가, 캄보디아에서는 영화강상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파키스탄 아미르비평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존엄성은 권위를 위해 대단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에서는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민주평화와 기대에서는 강연회가, 캄보디아에서는 영화강상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파키스탄 아미르비평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존엄성은 권위를 위해 대단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격변하는 행성에 아리랑열풍을 안아오신 선군령장의 업적 영원하리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리랑》에 대하여

평화와 정의는 인류의 념원이다. 하기에 인류사에 평화와 정의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대에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대변하는 존엄높은 강국을 일떠세웠을뿐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대격적으로 진정한 평화와 정의의 연방이며 그것이 어떻게 담보되는가를 밝혀준 위인이 없었다. 그는 위인전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우리 천만군민과 인류는 평양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통하여 가슴 벅치게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에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대적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아리랑열풍으로 들끓던 그 나라의 격정적 화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장조파장을 반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리랑》(리명철 작)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장편소설 《아리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불철주야의 선군정세속 내 나라의 국력을 굳건히 다져주시고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연 지적해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걸은 민족의 100년사에 대한 심혈한 분석과 함께 새 세기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의 길리랑을 끝까지 해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굽어지지 않았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도 인민군부대들과 토지정리부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대한 불철주야의 강령을 이어가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는 그후 격변하는 국제정치정세속에도 더욱 뚜렷이 부각되게 된다. 새 세기의 첫해에 총적적인 9.11 사건이 터지자 미제는 침략의 총검을 관통하게 휘두르는 한편 저들의 편에서는 나라도는 《선》으로, 그렇기 우리는 나라도는 《악》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비난한다. 결국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떠드는 미제가 《정의》로 둔갑되는 비정당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다. 하여 미제의 반공화국살상책동을 준엄히 규탄하는 성명들이 발표되는 속에 흑백을 전도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대한 천만군민의 분노는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의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협의회에 《아리랑》공연의 총연출가인 립진우를 비롯한 민족적 세계무대에 등장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시켜 제정도 《아리랑》으로 할대 대하여

심리적안정을 잃게 된다. 친구이자 매부가 될만한 하였던 전상승이 수십년 이 흐른 뒤에 속죄의 편지를 보내어 왔을 때 립진우는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받지 못할 인간으로 타매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수십년세월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을 위한 길에서 당하신 가슴아픈 일들을 회고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혁명가들은 민족문제앞에서는 제도와 리념은 물론이고 개인감정까지도 초월하고 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민족대단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한생이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전담받고 그후 장군님으로부터 조국통일장에 대한 형성방안을 직접 받아안으면서 립진우는 《아리랑》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는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다. 하여 그는 민족분열의 괴동인 얼마나 뼈아픈가를 새겨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조국통일장을 완성하고야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뜨거운 민족애에 의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봉화는 마침내 평양의 밤하늘가에 활활 타오르게 된다. 청천백운에서 시작되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그대로 침략세력의 강권과 정권을 짓부셔버리는 정의의 힘의 분출이 되었으며 세계평화를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화의 정화였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아리랑》이 거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정이 어린 선물식물들을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중앙식물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만포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기상수문부에서 현대적인 기상관측설비들을 갖추시고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기상수문관측소의 개건전투에 떨쳐나선 기술자들은 80일 남짓한 기간에 수십리나 되는 개건전투에서 백수십m의 골짜기를 채취하여 시어들면서 2중개건전투보수공사를 벌이면서 나날이 단조되었다.》

지난 6월 경에는 원수님께서는 기상수문국을 찾으시고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생명체산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전담받은 시당위원회와 책임일군은 즉시 시의 기상수문관측소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협의회를 열고있다.

현대적기계가 날이 변모되어가고있다.

현대적기계에 맞게 꾸러진 생산건물들과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인 제련원, 잘 포장된 구내도로와 색도블록포를 깔 걸음길들, 분홍꽃이시이나무를 비롯한 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 화단과 화대, 새 품종의 잔디밭... 그뿐이 아니다. 공장구내에는 구, 사슴, 원숭이, 공작새들이 뛰노는 숲이 울창하며 숲 속에서 동물원도 멋있게 꾸러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중흥하건조하되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열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단천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호상방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평안남도인민병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당의 의도 높은 사업성으로 받들어 나갈 불같은 열의안고 고려치료를 전문화하는데 나서서 학습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병원에서는 과학기술습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연자들이 민족의학발전과 관련한 세계적추세와 동향 등 자료일람이나 현실적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강의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지식전달이 위주되고 있던 종전의 방법 대신의 로봉사활동에서 실지 응용하도록 하여 위한 새로운 방법이 탐구되어 적용된 결과의 로일군들속에서는 고려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이와 함께 월별결정병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월말이 오

차수

병원의 립상연구소 신경의과연구실의 연구사들도 침치료와 수법치료, 부항로법, 저주파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약물성치료방법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최근기간에만 해도 수백명환자를 치료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인프라 및 당정부의 고의 지원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이리하여 말 하지 못하거니와 잘 지 못하던 여러명의 환자들을 고려의학방법으로 완치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인민병원에서 최근 한두해사이 거둔 자랑찬 결실은 고려의학의 번영을 위한 배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대한 우리 당정권의 정당성과 대항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정삼, 강명덕, 김동춘, 김영용동우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심혈속에서 그 우월성이 더욱 증진되고 고려의학의 신학의 배합작전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두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단천제련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있으며 직장마다 문화후생시설들을 어떻게 꾸러놓았다. 정양소와 휴양소도 개건하고 3개의 소공원과 7개의 휴식터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구내도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종업원들이 보다 좋은 문화후생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32층에 이르는 4만구르의 나무와 10층에 750구르의 과일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어 기업소구내를 숲이 우거지게 하였다. 걸음길마다 색도블록포를 깔아놓아 구내도로를 화단과 화대들이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심었다. 생산 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주변에 어머니나 빈방이런 전채 찾아볼수 없게 하여라지 나무들을 심고 4만 3천여㎡나 되는 면적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었다.

그러하여 제련소에서는 최근 몇해동안에 당지가 큰 문화회관을 새로 건설하고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인 제련원과 수영장, 연양제련장, 맥주공장을 일떠세

의약품의 질을 높인 비결

강서구역인민병원에서

속있게 진행하였다.

결과 고려약의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났으며 환자치료에서 고려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병원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다.

어느날 주민들의 질병구생상태와 년간약품소요량 등을 따져보면 원장은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고려약에 의한 치료를 적극화해대 한 조치를 취한지 해후내에 고려의약품들이 담당된 담담, 담도염과 만성위장염환자들의 호전기일은 해를 거듭하며 줄어들고있었지만 다른 고려의약품들이 말은 질병환자들의 치료기일에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줄어들어 갔다는 것이었다. 해당 의료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원장은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병원의 일부 의료일군들과 약제사들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진단을 내려 처방전을 매주거나 질병치료에 좋은 약을 처방함에 따라 내주면 약제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이들을 고르는 한편 종업원들속에 고려약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줄수 하리데 힘을 넣고 주에 1차적 과학기술습습을 실시

재능있는 축구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고려의약은 치료방법과 치료효과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고려의학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세월을 이어나면서 병치리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학이다.

고려의학은 기초리론이 다양하므로 하여 병의 원인과 발생과정 등을 다방면적인 견지에서 분석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병의 원인과 증상에 토대하여 변증을 하고 치료원칙과 방법을 정확히 세워 그 효과를 높일수 있는 우점도 있다.

고려의학치료방법에는 약물성치료방법과 침, 뜸, 부항, 수법 등과 같이 약을 전혀 쓰지 않고 환자들을 병을 낫게 하는 비약물성치료방법이 있다.

고려의학치료방법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천에 의거하였으므로 하여 원가가 적게 들뿐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매우 적어 사람들과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체질을 맞는 고려약들이 생산되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9일 10시부터 청춘거리 중경기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체육단,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체육단, 조선체육대학 선수들이 참가하는 유술(남, 녀)경기가 진행된다.



정주사(총소년체육학교)에서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친 재능있는 축구선수후비들이 더 많이 키우기 위해 교수훈련지도를 받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탐구되어 실천에 도입되고있다. 학생들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앞날의 축구명수가 될 만마음안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 마련되던 나날을 더듬어

지금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염원과 노력은 반통일세력의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결코 비관하지 않는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어 마련 해주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적 어버이수령님께서 통일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내놓으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그 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업적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심혈을 쏟으셨을 때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셨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서 통일방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민족분열은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며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해온 온 겨레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애를 거기다리고있다. 이처럼 현명한 민족사의 물음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60년 8월 15일 경주에서 열린 역사적인 보고에서 북남의 정치체도를 그대로 두고 양측 당국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두께로 대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할 때 대한 북남연방제안을 처음으로 내놓으셨다. 통일에 나아가는 지름길을 밝히시어 북남연방제안은 해내의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남조선 각계의 통일론자가 활성화되고 통일열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사실에서 《김일성수상의 통일방안문제는 우리 국민이거나 정치지도자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리 민족의 생활에 관한 문제, 국토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하고 타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도에 서만 모색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용기를 털어놓고 논의해보자는 의욕이 풍겨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연방제 통일방안은 전후 통일운동의 동토대로 되어있던 남조선땅을 이렇듯 통일운동의 열풍지대로 전변시켰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7.4 공동성명발표 이후 미제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통일불가능론》을 떠들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할 때에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연방제안 등을 밝힌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온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1980년 10월 10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었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자 독자적 체계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여오시는 과정에 내놓으신 심혈과 열정을 다스린 통일방안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로 지지하면서 연방제통일을 창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할 때 대한 제안 등 주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었다.

주제 82(1993)년 4월에 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어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을 창립할 때 대한 문제를 다시금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환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일관성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단결은 더는 미룰수 없다는 것이 수령님의 간곡한 뜻이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연방제통일 실현에 유리한 대내외적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는 것을 필성의 사명으로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통일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통일의 연선 기둥으로 세워주시어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년이 되는 주제 89(2000)년에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과 세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이라는 특기할 민족사적사건을 남겼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5 공동선언에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때 대하여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쪽의 편협한 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 것을 명기하도록 하시었다. 이로써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에 조지향해나갈수 있는 민족공동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업적을 오늘도 또한 한분도 빠듯안절세워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어 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배두산결세워이신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반 통일 골동품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최근 피퇴직준비위원회가 다음해 8.15를 계기로 그 무슨 《통일헌장》을 제정발표하겠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피퇴직당은 가스폼계도 저들이 조작하려는 《대통령》의 명의로 조야박아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통일지침》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에 대한 만족한 도전, 겨레의 통일념원과 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퇴직국의 《통일헌장》조작놀음은 철두철미 우리 제도를 해고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피퇴직당이 《통일헌장》이라는것을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는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은 그에 대한 뚜렷한 함정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공인하고있는바 같이 조국통일 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공명정대하고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이 다 담겨져있다. 통일로 가는 로정은 물론 통일국가의 국호로부터 그 전모와 활동원칙, 통일정부와 지역정부들의 권한과 임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확실히 밝혀져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통일문제해결에서 최고지침으로서의 절대적지위를 가진다. 그 무엇도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대신할수 없으며 또 다른 《통일헌장》이란 있을수 없다. 피퇴직수령이 몇년전에 들고나왔던 《통일헌장》이라는 것이 남조선 각계의 외면과 버림을 받고 리명박정권의 종말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되고간 것은 그것의 반통일적성격을 확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퇴직당은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부합이니, 《국민적합의》와 《국제적지지》니 뉘니 하며 또다시 케케묵은 골동품을 주어들고 마치고 새것이나 되는것처럼 판대구를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의 력사적지위를 의의를 깎아내리고 체제통일의 개공을 이루어보자는데 그 주된

목적이었다. 남조선당국이 반통일골동품으로 락인적인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다시 꺼내들고 조작놀음을 벌여 올리고있는것은 그들의 불일감과 위기의식의 집중적발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광범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던 북남관계를 해어나올수 없는 파국에 돌아가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피퇴직당이 북남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있다. 여론의 비난과 규탄이 세계에 퍼져나고있다. 정치권내부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 국도의 불일감과 초조감에 빠진 피퇴직당이 궁여지책으로 급기야 고안해낸것이 바로 《통일헌장》조작놀음이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통일지침》인 《통일헌장》을 만든다는것으로 통일이 판심이 있는듯 한 뉘를 피워 내외의 비방치는 비난을 모면하고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피하려하는 것이다. 《통일헌장》이라는것을 집권자의 지적으로 내세우고 그 막뒤에서 체제대결을 본격화하려는것이 피퇴직당이 추구하고있는 음흉한 속셈이다.

피퇴직당이 제야무리 팔팔한 수작을 늘어놓아도 《통일헌장》의 범죄적성격을 감출수 없다. 《통일헌장》조작놀음은 우리의 존엄을 제도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결, 통일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체제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려는 음흉 못랄 반민족적, 반통일적당동이다.

현실은 남조선피퇴직이 동족대결로 완전히 리성을 잃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서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통일헌장》조작행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현 피퇴직세력이야말로 추악한 민족반역세력이다.

최근의 전모로 가가마련이다. 민족의 존엄이고 미려인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감히 넘보면서 체제통일의 개공만 꾸는 피퇴직당에게 차레질것이란 비참한 종말밖에 없다.

심철영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배치되는 반통일적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반공화국베라살포행동을 규탄하라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은 5일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대결을 추구하는자들은 과멸을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전제 제중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사악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단행하고있는 반공화국베라살포행동에 치웃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위협한 총돌까지 빚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죄악에 대해 사죄할 대신 그 무슨 《표현의 자유》, 《사적행동》이니 하면 끝으로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다. 《어찌구무없는 주장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당국은 결코에는 속에 도 없는 《대화》와 《관계개선》대행 놀음을 벌이면서 실제에 있어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야독으로 락인하고 존엄히 단죄구관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금격히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고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한 외세와 여론과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베라살포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인간추물들을 계속 비호하고있다.

감행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고 애제보려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바라한다면 대결정착을 버리고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체없이 반공화국베라살포행동 같은 도발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제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제 제중조선인들은 남조선당국이 침입만도 못한 인간추물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베라살포행동을 벌일수 민족과 역사앞에 더 큰 죄악만을 쌓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장 정지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조선당국의 극단적인 대결책동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칼질하고있는 엄청난 정세와 판연하여 일차적 조국평화화합위원회는 피퇴직당의 반통일 범죄행위를 단죄구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어떻게 하나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령정의 발현으로서 피퇴직당은 우리의 정당한 경고를 새겨 듣고 저들의 무분별한 반통일적책행을 심각히 경고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피퇴직들은 《대북전선살포에 대해 의욕》하였더니 뉘니 하고 당치없는 계단을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뉘니 하는 도발적인 담화를 제치면서 정세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도 뉘런스럽게 늘어내고있다.

반공화국베라살포와 같은 대결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이 있을수 없다는 우리의 령정은 천만만 정당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에 대한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지향에 배반하게 극단적인 지경으로 치닫고있는 북남관계의 현 실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려진바와 같이 지난 10월 우리 총정지국장일행의 인연

방문은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한 중대한 계기였다. 해내의 온 겨레는 커다란 희망과 락관을 안고 좋은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 대화와 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펼치기를 학습고대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서해연접수역에서는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그늘을 던지는 피퇴직후보진파들의 무분별한 반통일적책행을 심각히 경고하여야 할것이다.

무장도발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의 대대단결로 조지 조정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피퇴직후보진파들의 무모한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한 망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퇴직당은 《월선》이니, 《침범》이니 하고 저들의 무장도발행위를 정당화하려들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총탄을 퍼붓는가 하면 피퇴직부대 경찰부대를 동원하여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방호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우리에 대한 비방상장에 열을 올렸다.

그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대결기운만이 고조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범죄

적당동을 중단할 때에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의 각계층도 피퇴직당이 관계개선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준연히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퇴직들은 《전쟁중에도 대화는 있다》, 《느니, 베라살포가 《회담》적인 문제》라느니, 대화를 파괴하는 《변수로 되지는 않는다》, 《느니》하는 성명지를 부렸는가 하면 지어는 《북에 선물을 주듯이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글 게재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10월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비교조장하는 피퇴직당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열을 올리고있는자들은 모두 북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인간쓰레기들이라고 밝혔다.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때문에 민족이 전제위기를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모르는척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경찰이 《탈북자》단체들을 지켜

주요 베라살포에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있다는것도 청와대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자를 보호야 할 경찰이 범죄자집단을 조사하는것은 막근해 자신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자리를 훔친 범죄자이기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탈북자》단체들의 베라살포가 위법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이라면 《세월》로특별법제정을 위한 풍선날리기는 왜 막았는가에 대해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베라살포놀음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일어난 반인민적인 란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앞으로 압박폐지를 요구하여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란행위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당국은 결코에는 속에 도 없는 《대화》와 《관계개선》대행 놀음을 벌이면서 실제에 있어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야독으로 락인하고 존엄히 단죄구관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금격히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고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한 외세와 여론과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베라살포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인간추물들을 계속 비호하고있다.

대화를 우롱하는 범죄적망동

남조선당국은 결코에는 속에 도 없는 《대화》와 《관계개선》대행 놀음을 벌이면서 실제에 있어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야독으로 락인하고 존엄히 단죄구관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금격히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고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한 외세와 여론과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베라살포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인간추물들을 계속 비호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일어난 반인민적인 란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앞으로 압박폐지를 요구하여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란행위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모두가 생애 단결하여 반(정부)》

반인민적악정에는 항거가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남조선공무원로조의 반 《정부》투쟁이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지난 9월 피퇴직당국회의 《새누리당》의 요구를 넘겨받아 그들과 함께 공무원들의 년급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년급개혁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라는것을 가진 후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로조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절기차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10월 17일 피퇴직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년급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분노는 더욱 세차게 폭발하였다.

피퇴직당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소식에 접한 공무원로조는 지난 10월 20일 공무원년급개혁안을 반대하여 흥파업에 돌입하였다. 공무원로조총합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투쟁으로 저지되었던 년급개혁의 개악안을 당국이 다시 들고나온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공무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년급개혁을 없애버린 개악안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경한 령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당국이 일방적으로 년급개혁을 시도한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나아가 《정권》 교체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 제는 우리가 《정권》 심판에 나설수밖에 없다. 개혁헌법을 만들지 저지시키겠다고 언명하였다.

지난 10월 28일에도 공무원로조는 《새누리당》 청사앞에서 공무원년급개혁안을 반대규탄하는 항의투쟁을 벌리었다. 투쟁에 참가한 200여명의 지부장들은 당시 실현 리해판계를 가진 정시자를 배제한채 제멋대로 꾸며낸 개혁안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총력투쟁에 돌입하였다. 집회에 서 발언한 공무원로조총합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년급을 줄이기에 사적년급을 황색화하는 데만 열심이 되어 버리고있다.》고 성토했다. 《합쳐 투쟁하여 공직년급을 지

키고 《새누리당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공무원로조총합위원장은 반인민적악정의 정체를 날랄이 까발리고 이제 겨우 사적년급의 처사를 방인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정권》 심판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가 단결하여 반 《정부》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공직년급제도 《정권》 심판 및 년급개악반대투쟁에 나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교직원로조총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년급개악안을 계속 고집한다면 100만 공무원과 교원들은 거리로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오늘하루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투쟁을 벌일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 정권세력이 100만 공무원을 현세나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있지만 실지로 파렴치하고 심판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는 다름이닌 《정부》와 《새누리당》 투쟁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본사기자 장문남

반인권적악법의 철폐 요구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반인민적인 란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앞으로 압박폐지를 요구하여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란행위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공무원년급개혁을 반대한다》

남조선당국은 결코에는 속에 도 없는 《대화》와 《관계개선》대행 놀음을 벌이면서 실제에 있어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야독으로 락인하고 존엄히 단죄구관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금격히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고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한 외세와 여론과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베라살포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인간추물들을 계속 비호하고있다.



